

오전(1부, 노량진) 6시  
 주일예배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주일예배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6년 4월 19일 (제 1354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 일곱 바퀴를 돌려

한은택 목사가 미국 비자를 발급받은 지난 90년대 때의 일이다. 몇 년 동안 비자가 나오지 않자 한은택 목사는 미국 대사관을 하루 한 바퀴씩 옛새를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았다고 한다. 당시 시위사건으로 대사관 앞에는 전경들이 둘러싸고 있던 터라 낮 뜨거울 수 있었고, 미국 대사관저 둘레를 일곱 바퀴 도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지만, 한 목사는 믿음의 일곱 바퀴를 다 돌고 공중전화부스에 들어가 '할렐루야'를 외쳤다. 그다음은 어찌 되었을까? 당연히 10년짜리 비자가 나왔다.

경험보다 큰 지식이 어디 있을까? 중국 북경에서 대학을 다니던 한 목사의 딸이 졸업 논문심사 때문에 고심하니까 한 목사가 딸에게 그랬다. "컴퍼스를 일곱 바퀴 돌아." 아빠의 말에 순종해서 딸아이가 그너른 대학 컴퍼스를 일곱 바퀴 돌았는데, 까다로운 논문심사가 통과되어 졸업하게 되었다. 여호수아 6장에는 여리고를 점령하는 장면이 나온다. 당시 여리고는 강력한 군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요새였다. 전술적으로 한참 열세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침묵하며 성을 돌아라." 이는 믿음과 순종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방법이 옳은지, 결과가 보장되는지 따진다. 그러나 순종에는 말이 필요없다. 그래서 '너희끼리 의논하지 말고, 입 다물고 성을 돌려'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

하루를 돌아도, 이틀을 돌아도 여리고 성에 실금하나 생기지 않았다. 심지어 일곱째 날 여섯 바퀴를 돌아도 끄떡도 없었다. 이때면 누구나 흔들린다. "거봐, 이런다고 철옹성이 무너지겠어?" 그러나 일곱 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을 때, 하나님은 사람으로서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셨다.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졌다.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한 순종이 이뤄질 때 일어난다. 납득이 되는 곳까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일곱 바퀴를 돌고 외칠 때 일어난다. 물이 아귀까지 찾지만, 연회장에 내놓을 때야 비로소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순종,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다.

#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난 11일, 우리 예수중심교단에 전례가 없는 대규모 청소년 부흥집회가 열렸다. 인천교회 대성전에서 청소년 전도집회가 열린 것이다. 이 집회를 위해 인천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기도에 전념했고, 전도에 매진했다. 누군가는 '저 큰 인천교회 대성전을 젊은이들로만 어떻게 채울까?' 걱정도 했지만, '못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다'라는 총회장 목사님의 강력한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은 보란 듯이 해내고 말았다. 이는 단순한 집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역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이날 강사로 선 이월드 목사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봄이 되면 겨우내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꽃도 피고 열었던 개울물도 흐르지 않습니까? 이처럼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인생에 봄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제 인생도 빛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제가 변했습니다. 죽었던 마음이 살아났고, 희망의 싹이 났고, 뜨거운 열정이 샘솟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음지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아무리 태양이 내리쬐어도 여러분이 커튼을 닫아놓으면 빛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커튼을 열어젖혀야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불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늦게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빛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만사가 풀립니다. 그분께 아뢰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길이 안 보여요.', '하나님, 내게 살아갈 소망을 주세요.' 그렇게 아뢰세요. 그러면 저에게 찾아와 삶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월드 목사의 진솔한 간증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심금을 울려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위로하고 해결하



인천 청소년 전도집회(2026년 4월 11일, 인천예수중심교회 대성전)

제 삶 속에 역사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총회장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평탄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상상할 수 없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희망도, 계획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고, 자살 시도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줄기 빛으로 제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제 삶을 인도하셔서 검정고시로 공부해서 호주 시드니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 이 단에서 있는 축복을

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3:20). 세상에 많은 책들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멘토가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구원자요, 우리 영혼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4:12).

시리라 믿는다. 예배 후에는 와우! 정말 놀라운 잔치가 교회 주차장에 배설되었다. 인천교회 장로님들이 풍성한 바베큐파티를 열어주신 것이다. 인천 청장년부가 지원한 커피차까지 있어 완벽했다. 더욱이 날씨가 화창해서 그야말로 천국 잔치였다. 아낌없이 지원해주시고 수고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 집회를 통해 미래 세대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이경업 생도



인천 청소년 전도집회에 몰려온 청소년들



봉사자들을 격려하시는 목사님



집회 후 인천교회 마당 바베큐파티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3:5~6)



# 고집을 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라

미국 캔자스시티 목회자 세미나는 원래 컨벤션센터에서 대규모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했고, 행여나 대규모 집회를 노리는 테러가 있을 수 있다는 미 정부의 요청으로 대규모 세미나가 취소되고, 세미나를 주관한 해리건 목사의 교회로 자리를 옮겨 소규모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야 불가항력의 일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집회가 취소되면 구스러워서인지 주최자인 해리건 목사에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고, 대신 부교역자가 숙소로 찾아와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한 타임을 세 강사가 시간을 쪼개 나눠서 진행하려 한다면, 각각 40분에서 45분 정도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실무진과 통역관이 숙소 아래에서 한참 실랑이를 벌인 모양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적어도 2시간은 쉼야 한다'고 주장해도 통하지 않으니 실무진이 제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며, 직접 만나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초청받은 강사이니 주최 측의 룰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성령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제한하면 제한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초빙한 강사에게 마이클을 넘기는 순간 이후 모든 순서를 다 맡겨버립니다.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말입니다."

저는 2시간을 달라고 고집부리지 않았습니 다. 다만 성령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말만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황을 전해 들은 해리건 목사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원하시는 대로 시간을 드리겠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본 영상처럼 2시간이 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제가 '나는 2시간 안 주면 못한다'고 고집을 부렸더라면, 저는 그 집회 강사로 설 수 없었을 것이고, 빈손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고집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 고집은 내 무덤을 파는 것이다

여러분, 고집을 버려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똥고집', '황소고집'이란 말이 있지요? 고집이 너무 센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그런 자는 고집불통이지라 일이 잘될 수가 없습니다. 바르가 그런 사람입니다. 애굽 왕 바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셨음에도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출7:13)라고 했는데, 이를 공동번역은 "고집을 버리지 않고"라고 해석해놓았습니다. 바르는 재앙이 임할 때마다 잠시 마음을 돌린 듯했으나 고통이 지나가면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점점 더 큰 재앙을 겪으면서도 그는 자기 생각을 고집했습니다. 그 결과 어찌 되었는지 여러분은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고집을 단순히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것 이상으로 봤습니다. 사울은 아멜렉 백성의 만행을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쓸데없는 고집을 피웠습니다(삼상15:1~9). 하나님은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좋은 것은 챙겼습니다(삼상15:9). 이를 알고 사무엘이 추궁하자 사울은 변명을 늘어냈고, 이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즉 거역하는 것은 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고집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똥고집을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 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쏟는도다"(롬2:5).

고집을 버려야 삽니다.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라고 했지만, 자기 고집대로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러

다 폭풍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으면서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토해내어 니느웨로 갖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잠28:9). 순종하지 않고 고집부리면 기도도 듣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깨달아야 하나님이 그의 기도도 들으시고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고집을 부렸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하며 '못한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자, 결국 모세는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

하였습니다. 그의 지팡이를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돕는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고자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길을 막으시고 환상을 통해 마케도냐로 가라고 하셨습니다(행16). 바울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방향을 바꾸어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로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도 처음에는 자기 생각과 전통을 고집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시며, 고넬료 집으로 가라고 명하시자 고집과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 말씀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눅5:5) 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신명기 28장의 대복(大福)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뤄지는 것입니다.

## 고집은 고립을 자초한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고집을 피울까요? 자기만 옳다는 생각에서 고집이 나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주장만이 옳다고 하며 귀를 막기에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왜 안 그러했습니까? 바울의 말대로 그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나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으니 자긍심이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집과 아집을 철저히 버리고 다시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행9:1~9). 그의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빌3:7~9).

그는 또 말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고후10:5).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지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버려야지요.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여러분, 고집과 믿음이 다르고, 고집과 원칙이 다른 겁니다. 믿음과 원칙은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나, 고집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기에 패망의 원인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 고집부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 삶에 고집은 나를 패망시키는 원인이 될 뿐이고, 나를 고립시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고집일랑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복을 받으십시오. 고집을 고집하지 마시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굳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잠29:1).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칼럼 ::

:: 영생에 이르는 길 ::

# 호르무즈 해협이 국제정치학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s)은 2020년 9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사이에 체결된 외교 정상화 협정으로서 이후 모로코(2020년 12월)와 수단(2021년 1월)까지 합류하였습니다. 협정의 공식 목적은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간의 평화 유지, 경제 협력 확대, 그리고 안보 협력 강화에 있으며, 이는 중동 지역의 기존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문제가 배제된 채 진행되면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실질적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긴장이 고조되었고, 특히 수니파 아랍 국가들의 새로운 결속은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시아파 국가와 그 추종 세력에게 위협으로 인식되어, 현재의 갈등과 충돌로 이어진 것입니다.

현재 이란 측에서 자국의 방어를 위하여 통제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분쟁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병목지역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이 격화되던 시기부터 사우디아라비아는 홍해까지 연결되는 이스트웨스트 원유 파이프라인(East - West Crude Oil Pipeline, 일명 Petroline)을 가동하여 하루 최대 500만~700만 배럴을 수송해왔고, UAE는 아부다비-푸자이라 파이프라인(Abu Dhabi Crude Oil Pipeline,

ADCOP)을 통해 하루 약 160만 배럴을 수송하고 있으며, 이라크-터키 파이프라인 역시 정치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일부 원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체 경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공급 충격을 완화할 수 있으나, 총 수송 능력은 하루 약 1,000만 배럴 수준으로 세계 시장 수요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봉쇄될 경우, 유럽 국가들은 상기 파이프라인을 통한 원유 공급을 확대할 것이며,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산 셰일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구매를 크게 늘려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1970년대 오일쇼크와 같은 급격한 가격 폭등은 일정 부분 회피할 수 있겠지만, 대체 경로의 수송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은 당분간 지정학적 긴장과 기회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변화된 균형점을 찾게 되면 투입되었던 파괴 및 복구 비용, 그리고 비효율에 기인한 부대비용까지 반영된 새로운 원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 금번 분쟁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자위권 지원이나 이란의 핵 능력 제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 공급국가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자 하는 전략적 목표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임윤석

:: 깊은 곳에서의 울림 ::

# 작은 시도와 큰 변화

얼마 전, 한 성도님이 처음으로 꽃 시장에 가보았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봄을 맞아 집 안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다는 마음에 꽃 시장에 들러 예쁜 꽃들을 골라 왔습니다.

선물로 받은 꽃다발을 화병에 꽂아 두기만 했지, 직접 꽃꽂이를 해본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참고해 꽃을 꽂아 보았고,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제법 만족스러운 꽃꽂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식탁 위와 거실 탁자 위에 각각 꽃을 놓고 보니, 주변도 꽃과 어울리게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은 정리하고, 여기저기 놓여 있던 액자와 소품들도 꽃과 어울리도록 다시 배치했습니다. 그러자 같은 집이 맞아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전보다 더 따뜻하고 밝아진 집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다과를 가지다 보니, 집 안에 웃음꽃도 함께 피어났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성도님은 일주일에 두세 번 새로운 요리에 도전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해보지 않았던 음식들을 유튜브를 보며 하나씩 만들어 보았고, 비슷하던 식탁에 새로운 음식들이 하나둘 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을 들여 준비한 음식을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줄 때마다 식사 시간도 한층 즐거워졌습니다. 맛있다고 칭찬해주는 가족들의 말에 큰 보람을 느꼈고, 요리에 대한 열정과 재미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집, 같은 일상이었지만 새로운 도전을 해보니 삶의 분위기와 하루의 기쁨이 달라졌다는 성도님의 간증을 들으며, 문득 '행복은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행복은 특별한 곳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일상에서 작은 시도를 시작할 때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멎어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처럼,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성공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고만 있던 도전이 있으신가요? 지금 그 도전을 시작해 봅시다! 행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꽃처럼 피어날 것을 믿습니다.

"변화가 두려우면 현실에 만족하고 살라라"  
김진실 사모

# 예수 중심이면 충분합니다

지난주 신학교 특강이었던 도봉교구 유교영 장로님의 간증은 복음 전파의 본질에 대해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과거 술꾼이었던 장로님을 교회로 이끈 것은 거창한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나오면 원하는 것을 다 사주겠다.'는 전도사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장로님이 참석했던 첫날, 설교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전도사님은 약속대로 보신탕에 소주를 사주셨습니다. 술을 원하니 술을 주어서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 지혜가 귀한 장로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상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그들의 갈급함이 무엇인지 살피고 문턱을 낮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문턱을 낮추는 역사입니다. 구약시대의 혈통과 율법이라는 높은 문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

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문턱을 낮추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마음을 얻어 예수께로 인도하는 '증인'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의 삶을 친히 이끌어갈 것입니다. 요즘 교구마다 유행하는 '계란 한판 전도'도 같은 원리입니다. 원하는 것을 주고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꽃길을 원하면 꽃씨를 뿌려야지요. 우리 스스로 높은 벽을 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 이름이 말해주듯 '예수 중심'이면 충분합니다. 본질을 잃지 않되, 영혼을 얻기 위해 기꺼이 낮아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문천명 전도사



:: 생명의 말씀 ::

# 열매

어느 날 우리 교회 전도사님께서 전철을 타고 교회에 오시다가 혼자 사시는 어르신 한 분을 만나게 되었다. 인사를 나누고 집에 가는 길이라는 어르신 말씀을 듣고는, 문산역 앞에 아주 유명한 팔죽집이 있는데 같이 드시고 가지자고 하셨다. 전도사님 말씀으로는 그냥 잘 따라오시더라. 그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문산교회 바로 옆으로 이사까지 하시고, 기도회와 예배에 매일 나오신다.

하루는 우리 성도님께서 집을 계약하게 되었는데, 집을 보러 갔다가 그 집에 사는 임차인을 만나 이 얘기 저 얘기를 나누다가 당일에 기도회까지 따라오게 되었다. 기구한 사연이 있는 분이셨는데, 이는 분의 소개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큰 손해를 보고 자살하고 싶었다고 한다. 죽을 용기가 없어 집 앞의 나지막한 산에 올라가 교회도 안 나가시는 분이 날마다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셨다고 한다. 그렇게 수요일에 배를 나오시고 주일에 배에도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는 꼭 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서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전도 방법이 하나 있다. 기도원집회다! 한 번도 기도원

에 와보지 않은 사람들을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우리 기도원으로 초청한다. 날도 따뜻하고 꽃도 피는 바야흐로 춘계산상집회 시즌이 돌아온 것이다.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미국에서부터 인연이 되어 지금은 전라도에 살고 있는 친구 부부를 4월 말에 기도원으로 초대하고, 또 지방에 사는 동생과 친척을 기도원에서 만나고, 타지역에 사는 친구를 부르고, 지금부터 열의와 기대가 대단하다. 새신자인 우리 집사님의 여동생분도 이번 기도원집회에 꼭 모시고 가려고 기도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성도들이 합심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집회를 통해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응답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늘상 경험하는 일이지만, 기도원집회만 모시고 가면 새신자는 일꾼이 되어 돌아온다. 기도원은 돌도 없는 영적 요람이자 종합병원이며 훈련장이다. 모든 문제 또한 해결 받는다. 큰 천국 잔치이며, 엄청난 전도의 장인 것이다. 모든 성도님과 가족, 친척, 친구, 지인, 지나가다 만난 사람들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초대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장순천 목사

:: 성경에서 배운다 ::

:: 참된 깨달음 ::

# 밀어야 열리는 문

어떤 문에 “PUSH(미세요)”라고 적혀 있는데, 당기기만 하면 열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열리지 않는다고, 문이 고장 났다고 불평하지만, 사실 방법이 틀린 것이지요. 은행 계좌에 돈을 넣지도 않고, 돈을 인출하려고 하면 당연히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10만 원을 넣고, 1,000만 원이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는 없는 노릇이요. 농부가 땅을 향해 “열매 먼저 줘봐. 그럼 씨앗을 뿌려줄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속, 씨뿌리는 농부의 비유에서도 나타나듯, 농부가 조건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씨를 뿌려도 4분의 3은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 뿌려지게 되고, 그나마 열매가 좋은 땅을 만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좋은 땅만 찾아서 뿌려야지.’ 하는 생각에 행동하지 않으면 도무지 열매를 얻기 힘들 테지요.

우리 삶과 신앙도 때로는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지.’ 혹은 ‘네가 나한테 이만큼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잘해주겠니?’라며 자기만의 공평을 주장하지만, 사실은 사랑의 시작을 미루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자신을 비난하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상대의 자격’이 아닌 ‘자신의 주도적인 사랑’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셨고, 결국 그 사랑에 스며든 베드로와 제자들은 목숨을 바쳐 순교하는 자리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고,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한 게 없다’(마5:46~47)는 말씀도,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사랑하고, 낯선 누군가에게도 먼저 다가가는 것’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축복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제가 산 복권 당첨시켜 주시면 절반 드릴게요.”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순서와 방법을 바꿔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사르밧과

부는 마지막 남은 것을 먼저 드렸을 때,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작은 아이가 자신의 오병이어를 드렸을 때, 그것은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난 후 재산의 절반을 나누고, 잘못된 것을 갚겠다고 먼저 변화를 결단했기에,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언하실 수 있던 것입니다.

세상은 ‘받으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다릅니다. ‘먼저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주리라’(눅6:38).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삶의 변화가 없고,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는지 고민이 된다면, 혹여 ‘밀어야 열리는 문’을 당기고 있지는 않은지, 10만 원 통장에서 1,000만 원의 인출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닌지, 좋은 땅만 골라서 뿌린다는 명목으로, 이것저것 계산하며 행동은 잠시 미뤄두지는 않았는지 ‘순서와 방법’을 다시금 점검해봅시다. **하인명 집사**

# 뼈를 썩게 하는 독, 시기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질투로 인한 다툼은 빈번하다. 정작 자신은 헌신하지 않으면서, 기꺼이 봉사와 예물을 드리는 이들을 비방하거나 훼방하기도 한다. 타인이 나보다 높은 평가를 받거나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낄 때, 그 대상은 곧 시기의 표적이 된다. ‘시기’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타인이 가졌을 때 느끼는 불쾌감이며, ‘질투’는 소중한 관계를 제3자에게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감정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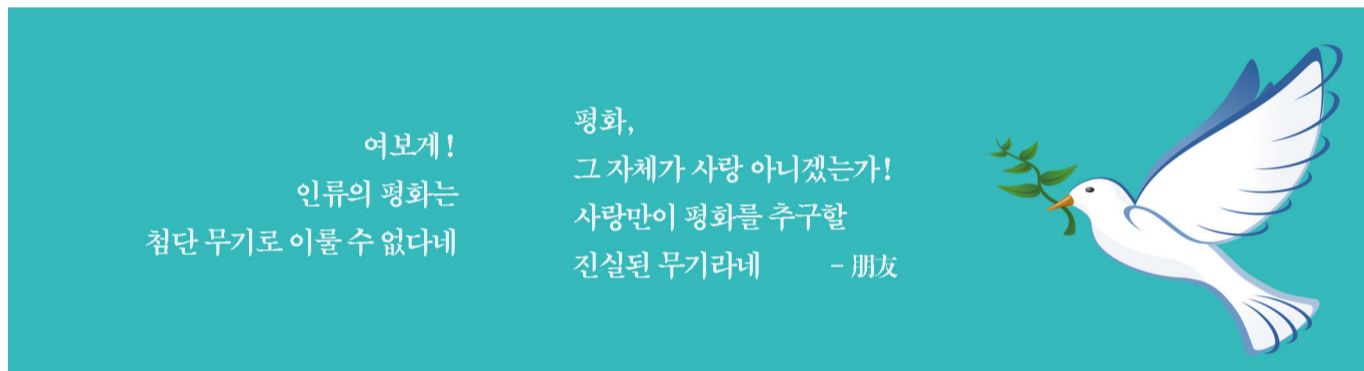
시기는 남을 향한 공격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이자 죄다(창4:6~7). 성경은 인간의 다양한 감정 중 ‘시기’를 엄중히 경계하며, 이를 ‘뼈를 썩게 하는 독’(잠14:30)이라 규정한다. 이는 성령이 아닌 육신의 본능을 따를 때 나타나는 영적 부패의 증거다. 질투는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데서 시작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이 쌓이면, 인정받지 못한 서운함이 분노로 변한다. 결국 그 화살은 상대를 해치거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질투는 내 의지만으로 없앨 수 없다. 성령의 통치 아래 자신을 내어드릴 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맺히며 시기심은 사라진다(갈5:22~23). 내 명예를 지키려는 욕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늘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 다행히 질투는 하나님의 섭리를 막지 못한다. 유대인의 시기가 오히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되었듯, 하나님은 시기 받는 자의 편에서 더 넓은 길을 여신다.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타인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일은 나를 살리는 가장 큰 용기다. 비교의 창을 닫고 은혜의 거울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경쟁자가 아닌 동역자로 보게 된다. 썩어가는 뼈를 다시 견고하게 만드는 유일한 힘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뿐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고전13:4).

양은정 전도사



:: 치우치지 않는 저울 ::

# 마귀와 싸울 인생을 사람과의 싸움으로 허비하지 말라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엡6:12)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이 아닌 사람과의 싸움에 세월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영적 싸움(마귀와의 싸움)을 회피하고,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갈등에 매몰되는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의 교묘한 전략은 대리 목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자신(마귀)의 존재나 영향력을 깨닫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속입니다. 마귀는 우리와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미움, 시기, 다툼, 오해와 같은 감정적 갈등을 유발하여 근본적인 문제와 싸우는 대신, 눈앞의 사람, 말, 행동에 분노하고 에너지를 소진하게 만듭니다. 또한 마귀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실수와 단점만을 확대해서,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세력의 존재를 간과하

게 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기도, 말씀 묵상, 금식, 회개 등 고된 영적 훈련을 요구합니다. 사람과의 감정싸움은 감정을 분출하는 것으로 잠시나마 해소감을 주지만, 마귀와의 싸움은 지속적인 영적 무장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다투는 것은 쉽지만, 내 안의 죄성과 싸워 회개하고 변화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집중해야 함을 명확히 선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대적은 눈앞의 동료, 가족, 혹은 이웃이 아니라 그들을 이용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힘이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엡6:13~17).

마귀와의 싸움에 집중한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마귀의 전략(본

열)에 맞서 사랑으로 대응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며(롬13:10), 마귀의 계락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눅6:37)라는 말씀처럼, 먼저 용서함으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미워하는 사람과 싸우는 대신, 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는 마귀의 진을 파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뿌리를 제거하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사람과의 싸움으로 세월을 허비하는 것은 마귀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며, 영적 싸움의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초점을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서 ‘악의 영들’로 돌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함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최연식 목사

**춘계산상집회**  
4월 27일(월)~30일(목)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호텔예약\***  
4월 21일(화) 오전 10시 정각  
홈페이지(www.jcc.tv)

**이초석 목사 필리핀 세부 집회** 2026년 5월 6일(수)~12일(화)